

(19) 재일제주인들의 사랑방 '만나노 TV'

한인회.도민회.민단 등 행사 영상.한국요리교실 등 소개

재일교포 2~4세의 참여와 관심 위해 고철명 대표가 운영

데스크승인 2015.07.24 고경호 기자 | uni@jejunews.com



재일제주인들의 모든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.

이 사이트는 고철명 (주)ILLUSION 대표(61)가 자원봉사를 통해 행사 영상들을 촬영한 후 올리는 바로 만나노 TV(minnano-ktv.jp)다.

이곳에는 재일본도쿄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, 지방본부, 민단 지부, 한인회, 한국문화원 등 재일교포들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에 대한 행사와 홍보 영상 등이 담겨 있다.

이와 함께 이 사이트에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등 점점 고국과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재일교포 2, 3, 4세들을 위한 한국 요리교실도 마련돼 있다.

여기에 한일친선협회와 도쿄일한친선협회연합회, 도쿄한국상공인회의소, 부인회, 청년회, 체육회 등 민단 협력단체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도 가미돼 있다.

이 사이트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재일교포 2, 3, 4세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불러넣기 위해 고 대표가 착안해 마련했다.

이 사이트의 운영을 위해 고 대표는 직접 관련 단체들의 각종 행사시기를 체크해 직접 촬영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.

고 대표는 "4년 전에 한국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행사를 촬영하게 되면서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"며 "이후 재일교포 2, 3, 4세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이트에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시키고 있다"고 말했다.

고 대표는 또 "나 역시 한국 사람인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일본 사람이 돼 버린다.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이 사이트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"며 "정치적인 것들을 모두 배제한 뒤 즐거운 민단, 즐거운 도민회를 만들기 위해 사이트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고경호 기자 uni@jejunews.com

© 제주신보(<http://www.jeju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